일상적 삶의 아웃소싱

(사무엘하 16:1~23)

15.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2.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23.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상적 삶의 아웃소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일상적 삶의 아웃소싱’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흔히 말하는 외주(外注)로서 바깥으로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자면 기업이나 조직의 서비스나 기능 등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인소싱(insourcing)의 반대말로서, 경쟁력이 있는 특정 외부의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내부에서 해오던 일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새 부서를 만들어서 비용과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확대되어 경리나 회계업무까지도 외부의 회계 법인에 맡기게 되고, 심지어 승진이

나 해고 등의 인사문제까지도 외부 전문가에게 의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경영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이나 생산 공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바깥에서 얻어냅니다. 이러한 아웃소싱이 확대되다보니 본사가 없어져도 운영이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본사는 기획과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사가 없더라도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장점은 비용이 절감되고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줄어들고 회사는 핵심 분야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웃소싱을 개인의 삶으로 가지고 와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면에서 아웃소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관계되는 핵심적인 사항에만 힘을 주력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외적자원)을 동원해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우리 삶도 윤택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의 아웃소싱으로부터 힌트를 얻지 않더라도 본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영위하도록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은 아웃소싱으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였기에, 낙원을 살고 싶다면 아웃소싱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컨설팅을 외부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지상에서 낙원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선악과나무가 있었는데 내 삶의 경영컨설팅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호불호를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 삶을 살아가다보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필요한 판단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게 돈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을 아웃소싱 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력해야 하는 핵심과제가 무엇이기에 판단 자체를 아웃소싱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을 성취할 때에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며, 에덴동산에서의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력해야 했던 핵심과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면 먹고 입고 사업하고 삶의 모든 일들은 아웃소싱으로 맡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인간은 삶의 판단을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기업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웃소싱을 맡겨서 해결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본래의 에덴동산에서의

핵심과제인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찾는 일을 망각하게 되어서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두 명의 모사가 등장합니다. 다윗 편에 선 후새와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하게 되어 온 나라가 양분되는 혼란한 시기를 후새와 아히도벨의 대결의 양상으로 축소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모사들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필요한 지략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압살롬을 대신하여 아이디어로 대결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어겨졌더라"라고 할 만큼 큰 영향력으로 다윗에게 작용했었고 이제는 압살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왕위를 견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다윗으로서는 설마하고 여겼던 일들인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다윗의 후궁 열 명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범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근동지방에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로서, 완전한 정복을 상징적으로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일로 기존의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됨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정권을 찬탈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아이도벨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은 본래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도둑놈의 집단이나 깡패집단이나 마피아집단내에서 조직의 보스의 맘에 적중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속시키는 자일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묻고 판단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판단의 아웃소싱을 받아서 사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절름발이 므비보셋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울 왕가에서 집사 일을 하던 시바에게 므비보셋을 보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시바가 먹을거리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너의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시바가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데, 여기서 다윗이 속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왕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 난 것입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 왕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사울 왕가가 그 대에서 끊어지고 왕위로부터 폐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삼하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몸에서 태어난 씨가 왕이 될 것이고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나타나서 사울 왕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가에 일어났던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다윗의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만류하며,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바라고 받아들이면서 왕위가 사울 왕가에서처럼 폐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집안이 온전한 왕가로서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판단의 아웃소싱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왕위를 잃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불안에 떨면서도 왕위를 더욱 붙잡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왕위를 떨쳐내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적했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시바와 시므이를 통해 사울 왕가에 대한 일을 떠올리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칠 수 있음을 알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잃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위를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왕위를 빼앗으려는 하나님을 끌어안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성공과 돈과 자녀들의 형통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내게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핵심과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안자 하나님께서는 후새의 아이디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기게 하심으로 압살롬이 후새의 아이디어를 따르게 되고 압살롬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다

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을 사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으로 시바와 시므이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게 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시려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여겨서 붙잡는 것이 곧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주변 상황에 대한 모든 판단이 죽게 되면, 어렵고 복잡한 혼란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판단이 아웃소싱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이 핵심과제에 주력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듯이, 우리는 핵심과제인 하나님께 주력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갖기에만 주력하다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웃소싱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보잘 것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돈을 벌겠다고 백날 노력하더라도, 월급 30만원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월 매상을 100만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그러한 일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완전히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필요한 판단은 모두 하나님께 아웃소싱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과 생각과 소원과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은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평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를 실 때에 주님 가신 곳으로 몸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일상적인 삶도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다른 것을 갖는 상태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갖기에 주력한다면, 판단도 소원도 계획도 모두 하나님께 아웃소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역량과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갖는 일에 투입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삶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아웃소싱 되어서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